



### 불교 이래서 좋다

안수진 경희대 음악대학원 재학

독실한 불자집안에 태어난 나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몇 번 절에 갔고 불교에 대해 막연한 호기심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대학재학 시절 PC통신 불교동호회를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불교라는 종교보다는 사람이 좋아 불교동호회를 나가게 되었지만 점차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사찰을 참배하고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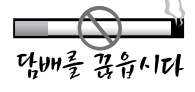


보게 하고 외부의 짐착에 연연하지 않게 만드는 것 같아 좋다. 내가 잘되어도 내탓이요, 못되어도 내탓이라는 생각이 남을 생각하는 자리타의 마음과 나의 삶의 질은 높여주는 것 같다. 불교를 믿으면서 몇가지 아쉬움도 가지게 됐다. 젊은 기독교인들에 비해 불자들이 신생활이나 기타 대 사회적 활동에 소극적일 때 그런 마음이 커져

### 부처님 생각만해도 힘 생겨

를 하면서 불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절에 가서도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 어색했는데 지금은 향을 사르며 삼배를 올리고 보시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느낄만큼 내 속에 불교라는 종교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에게 편안하고 마음의 안식을 준다. 또 어렵고 힘들때 부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힘이 생기는 것 같다. 특히 끊임없이 나 자신을 되 돌아

만 갔다. 물론 종교적인 색채가 그런것도 있겠지만 우리 불교인, 특히 젊은 불자들이 더 활동적이고 불교에 대한 더 많은 애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 자신의 소원을 빌게 마련이다. 그래서 나도 새해에는 조그마한 원을 세워 본다. 부처님! 새해에는 불교교양대학에 등록하여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하겠습니다. 또한 기회가 되는대로 지방의 명찰들을 참배하며 신앙심을 더욱 키우겠습니다.



### 담배를 끊읍시다

#### 금연과 체중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는 담배를 끊으면 체중이 2-4kg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체중이 늘는 이유는 몸에서 담배 찌꺼기

담배를 끊으면 미각과 후각이 회복되기 때문에 식욕이 늘면서 예전보다 많이 먹는 것도 체중이 늘는 원인중의 하나다. 특히 금연 후 담배대신 군것질을 많이 하는 것이 살이 찌는 주요인이다. 금연중 체중증가를 막기위해서

#### 미·후각 회복이 살찌는 원인

#### 운동은 담배 잇도록 도와줘

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에너지 소모가 줄어드는 것은 몸에 나쁜 증상이 아니다. 담배를 피울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에너지 소모량이 증가하지만 담배를 끊으면서 에너지 대사가 안정된다.

는 식사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운동은 담배를 잇을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아니라 긴장과 스트레스를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고 심폐기능이 좋아지는 것을 직접 확인할수 있다.

“절의 입구인 일주문을 지나 중문으로 들어가면 절에서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대웅전이다. - 종각 - 대부분의 절이 대웅전과 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웅전 뒤에는 스님이 공부하는 강당이 있다.”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사회과 탐구> 31쪽에 나오는 박물관 견학과 문화재 답사 지문이다. 은석초등학교 김한기 선생님은 이 지문 가운데 ‘중문으로’는 사천왕문이나 금강문 등에 해당 하는 표현이 잘못되었고 ‘스님이 공부하는 강당’이 대웅전 뒤에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가람 배치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 기술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이 펴낸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나타난 초·중·고등학교 불교관련 기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백서>(이하 <백서>)에는 종교편향적 내용이나 특정종교를 미화하는 내용이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되어 있다. 또 매 사례마다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

## ‘교과서’ 종교편향·불교왜곡 수두룩

### (대웅전 뒤 스님 공부하는 강당있다?)

지 대안도 명하고 있다. 특히 <백서>의 내용이 모두 종립학교 등에서 오랜 교직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이 현장 경험을 바탕

또는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현재 발간되어 있는 교과서들이 대부분 서양 위주의 사관에 따라 기술되어 있어 개선되어야 한다고

## 집필시 종교교사·전문가 참여 시켜야 사전예방·제도개선 등 적극 대응 필요

으로 분석한 내용이어서 더욱 가치가 있다는 평이다. <백서> 집필에 참여한 현장 교사들은 교과서 편찬위에 종교(불교)지식을 구비한 교사

지적했다. 또한 현장 교사를 상대로 교과서 편찬의 개선이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반영해야 하며 한국문화의 주요 근간인 불교 문화와 불교 문화유산을 소개해야한다고 입

을 모았다. <백서>에서 분석한 교과서는 국어, 도덕, 국사, 사회, 철학 교과와 초등학교 주요 교과서, 그리고 수학 교과서 등이며 아직 개편이 안된 교과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계종은 이번 <백서> 발간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과서 개정용 교육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번 <백서>에 다루어지지 않은 ‘교사 지도서’의 내용과 분석되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분석을 실시해 내년 <백서 2>를 발간할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정한신 계장은 “교과서 불교관련 기술에 관한 분석은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바로잡는데 역점을 두었고 교육부에 이에 대한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며 “특히 앞으로 있을 종교편향 등도 사전 예방하자는 목적도 있을뿐만 아니라 법제도 개선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 윤슬기양 “골든벨을 울리다”

#### ‘진선여고 최고의 날’ 만들어 평소 배운 참선으로 부담감 덜어

“정답은... ‘시학’입니다” “와...”

시 10분 KBS 1TV가 방영한 ‘도전! 골든벨 진선여고 편’에서 30번째 골든벨의 주인공이 된 윤슬기 양. 최후의 1인으로 남아 나머지 문제를 풀때 많은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꼈지만 평소 심학시간(진각종 종립학교)에만

있는 불교수업시간에 배운 참선 등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슬기 양은 또 지난 16일 서울 등촌동 KBS 88체육관에서 녹화된 연말특집 2002 왕중왕전에서 최후의 3인에 남아 학교의 명예를 드높였다. 골든벨의 주인공 윤슬기 양은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여서 수능시험 당일에는 어머니가 주신 108염주를 주머니속에 넣고 시험을 보았다. 슬기양은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 하도록 부처님이 한번 더 도와 주시길 바란다”며 수줍어 했다.

## 007 불상앞 러브신 삭제 요구

### 조계종, 불교 무시한 비상식적 행위 규정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원회는 17일 불상 앞 러브신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영화 ‘007 다이아너데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문제장면 삭제를 요구했다. 16일 시사사회 관람후 종교편향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영화 007 다이아

너데이에 대한 입장’에서 “아무런 개연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상 앞에서 정사장면이 나오는 것은 예경의 대상인 불상을 소품화시키고 불교를 무시한 비상식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영화 장면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 ‘007 다이아너데이’가 시종 일관 폭력적이며 남북의 갈등을 조장하는 반평화적인 내용을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편위는 “불자들이 반평화적 반불교적 내용을 담은 이 영화를 보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피력했다. 이에 앞서 종편위는 4일 배급사인 21세기 폭스코리아에 질의서를 보냈고 6일 “불상이 보이는 허름한 외관 가옥은 사찰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강지연 기자

#### ‘우리는 선우’ 총회 및 송년모임

(사)우리는 선우이사장 박광서는 7일 우리는 선우 법당에서 ‘2002년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을 갖고 박광서 이사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한편 신입이사도 이수복 상임이사 외 13명, 감사 2명을 추대했다. 또한 2003년 예산을 63,194만원으로 확정했다. 박광서 이사장은 “제가불교단체인 우리는 선우가 재가불자의 바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며 “회원들도 불교계뿐만아니라 세계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불자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소감을 밝혔다.

#### ‘조계사’ 어린이 겨울학교 개최

조계사 어린이회회는 내년 1월 4일-5일까지 1박 2일동안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선재동자의 겨울여행’을 주제로 한 겨울 불교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겨울불교학교는 한복입기, 우리차 마시기, 연·등만들기, 전통놀이, 새해 발원 등 밝히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참가신청은 조계사 어린이회로 직접 하면 된다.(02)733-9357

### 명작 비디오 파일

#### 분노의 질주

오디오 등 값비싼 고급 외제 전자제품 운송 컨테이너 트럭의 도난사고가 폭주족들에 의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경찰과 FBI는 사복경찰 브라이언을 폭주족으로 위장시켜 폭주족 탐으로 잠입하게 한다. 폭주족의 대표적인 도미닉 토레토에게 접근한 브라이언은 그의 신임을 얻어 폭주족 대열에 끼어든다. 도미닉의 양숙인 조니 트란은 계속 도미닉을 괴롭히고 조니의 차고에 잠입한 브라이언은 도난사고 장물들을 발견하게 된다. 경찰이 조니를 연행하지만 무혐의로 풀려나고 조니는 도미닉의 사주로 생각해 그의 풍요를 살해한다. 2001년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 ‘분노의 질주’는 분노의 댓가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만든다. 트럭을 훔치고 살인까지 저지른 조니는 나중에 트럭에 치어 숨진다. 이같은 설정은 불자인 톱 코헨 감독이 영화 전반에 깔



아놓은 카르마(業)의 복선. 감독 스스로 밝힌 카르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직접적으로 시사한 장면이다. <달범행경>에 의하면 부처님은 “흑업(黑業)에는 흑보(黑報)가, 백업(白業)에는 백보(白報)가, 흑백업에는 흑백보가 따르고, 불흑불백업에는 보가 없다”라고 설한다. 불흑불백의 업이란 인간의 의지적 작용이 아니기에 보가 없다고 설하신 것.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도 의지가 깃들여 졌다면 그 과보에 대한 준비는 단단히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강지연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밤슨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선은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 396-2736 · HP 016) 228-2358  
http://www.avatarcenr.co.kr  
E-mail: bokbat@kornet.net